

공수처법 처리·윤석열 징계위 '격동의 일주일'

민주, 9일 본회의의 공수처법 개정안·공정경제 3법 등 쟁점 법안 처리 10일 징계위 앞, 秋 '윤 직무 정지 효력 정지' 항고·尹, 기피신청 예고

추미에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극한 대립의 정점이 될 검사징계위원회가 오는 10일 열릴 예정이어서 이번 주가 두 사람의 사활을 건 승부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10일 검사징계위를 열고 윤 총장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이날 징계위가 해임 등 감봉 이상의 징계를 의결하면 추 장관은 이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정하게 된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는 당초 지난 2일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윤 총장 측의 요청으로 4일로 미뤄다가 다시 10일로 재연기됐다.

징계위는 위원장인 추 장관과 이용구 차관, 장관 지명 검사 2명, 장관 위촉 외부인사 3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다만 이번 징계위는 검찰총장이 대상이어서 징계 청구를 한 추 장관은 심의에서 배제되며, 징계위원회 장 직무를 대리할 징계위원을 지정해야 한다. 추 장

관은 공정성 논란을 피하고자 이 차관이 아닌 외부 인사에게 맡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 측은 이 차관을 비롯해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신성식 대검 부장판사 등 추 장관과 가까운 인사들이 징계위원으로 참여하면 기피 신청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징계위를 앞두고 양측 간 신경전이 팽팽해 또다시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장 윤 총장 측은 검사징계법에 문제가 있다고 헌법소원을 내면서 헌법재판소 결정 때까지 징계위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징계를 청구하면서 동시에 징계위원 대부분을 지명·위촉

할 수 있어 소추와 심판을 분리하도록 한 사법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맞서 추 장관 측도 윤 총장의 직무 정지 효력을 정지시킨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는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다.

징계위에 앞서 7일에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도 이번 징계위에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이 회의에서 윤 총장의 핵심 징계사유인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이 안전으로 상정돼 구체적인 판단이 내려지면 양 진영 가운데 어느 한쪽은 타격을 입을 수 있다.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은 아직 회의 안전으로 올라 오지 않았다. 하지만 회의 당일 10명 이상이 제안

하면 안전으로 논의할 수 있다.

아울러 오는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여부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공수처법이 처리되고 나면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거취를 함께 정리하는 이른바 '동반 퇴진론'이 다시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내년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인사 수요가 있는 데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최근 "연말연시 2차례에 걸쳐 개각이 이뤄질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의 거취가 정해지면 추 장관은 내년 초 2차 개각 때 교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공수처·세월호법 개정안 반드시 처리" 이탄희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3040 초선의원들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수처법과 세월호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기자회견을 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 물밑 당권 경쟁 시작

당권·대권 분리...3개월 후 공석 송영길·우원식·홍영표 경쟁 구도 광주시당, 日 평균 40명 신규 당원

당권과 대권을 분리하는 당헌·당규 탓에 3개월 후에는 공석이 될 가능성이 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자리를 두고 물밑 경쟁이 본격화 하는 양상이다. 통상 대통령선거와 총선, 지방선거가 없는 기간에는 당원모집이 뜸한데 최근 민주당 광주시당의 경우 하루 평균 30~40명의 신규 당원이 모집되고 있어 "당권 경쟁 준비를 위한 당원모집"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당내에서는 송영길(5선·인천 계양을)·우원식(4선·서울 노원을)·홍영표(4선·인천 부평을) 의원

이 경쟁 구도를 형성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회 외동위원장인 송 의원은 미국 정권 교체기를 맞이해 당 한반도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을 이끌고 방미해 존재감을 부각했다. 또 가덕도 신공항 건설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부산·울산·경남(PK) 지역에 러브콜을 보내기도 했다. 오는 10일엔 부산 명예시민으로도 위촉된다. 시장을 지낸 인천과 고향인 호남에 더해 영남권까지 삼각 지지기반을 구축한 셈이다.

진보·개혁성향 의원모임인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의 지지를 기대하는 우원식 의원은 당 국가기원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 추진단 단장으로서 전국 토론회를 여는 것을 계기로 자연스럽게 당원들과의 접촉면을 넓히고 있다. 친문의 원로인 이해찬 전 대표가 후원회장을 맡기로 한 것은 주류와 거리가 있는 우 의원에게 천군만마가 됐다. 우 의원은

최근 다시 구성된 당 민생연석회의의 수석부회장을 수락하고 민생 행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친문 핵심으로 분류되는 홍영표 의원도 당 참좋은 지방정부위원장으로서 전국을 돌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했다. 특히 인구 100만명 이상 지자체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를 통과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후문이다. 홍 의원은 친문(친문제인)계 의원 50여명이 참여하는 매머드급 싱크탱크 '민주주의4.0연구원'에도 이름을 올리고, 추미에 법무부 장관의 교체를 처음으로 거론하는 등 현안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편 민주당 당헌 제25조는 당 대표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1년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낙연 대표가 대선에 출마한다면 내년 3월 9일 이전에 사퇴해야 한다. 사퇴 시한을 모두 채운다면 임시 전담대회는 4·7 재보선 이후인 내년 5월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여의도 브리핑

송갑석, 체육센터 건립·하수관 교체 등 국비 7억원 확보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갑) 국회의원은 6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상무시민공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3억, 서구 관내 노후 하수관 교체 공사 4억, 총 7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해 재난예방 및 주민 문화·여가 활동 증진 등 광주 서구의 시급한 현안사업에 송통이 트이게 됐다"고 밝혔다.

국민체육센터가 신축되는 상무시민공원은 많은 시민이 즐겨 찾지만, 조성된 지 20년이 지나 시설 부족 문제로 이용에 어려움이 많았다. 생활 밀착형 국민체육센터 신축을 통해 체육 시설 확



대와 생활체육 활성화 등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송 의원은 "지난 2년간 행정안전부 및 교육부 서구 특별교부세 120억원 확보를 통해 서구 곳곳의 현안 사업을 챙겨왔다"며 "앞으로도 특별교부세, 공모사업 등 다양한 국비를 확보해 서구의 정주여건 개선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소병철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법안 발의

디지털 신원증명체계가 구축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은 6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신청, 발급받아 안전하고 편리하게 휴대 및 제시 등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서비스의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내년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행 도로교통법은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을 전제로 규정되어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관한 내용을 신설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을 통하여 제공받는 암호화된 운전면허증을 일컫으며, 유효기간은 3년이다.

소 의원은 "시민들이 점차 발달하고 있는 기술의 편익을 충분히 누리실 수 있도록 관련 입법 개정을 세심하게 챙겨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개호, 지역구내 3개 국립기관 설립 예산 확보

더불어민주당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국회의원은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에 3개 국립기관 지역구 설립을 확정하는 예산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국회 예산심의를 통해 확정된 2021년 정부 예산안에서 담양·함평·영광·장성 지역구에 9건에 달하는 신규 사업비를 새로 반영하는 등 정부안 대비 무려 202억을 순수증액 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담양군은 한국정원문화원 조성 사업비 16억을 확보해 담양이 생태정원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정원산업을 육성해 나갈 발판을



마련했다. 장성군은 오랜 숙원이었던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 예산으로 43억을 반영시키면서 심혈관 의료산업을 지역특화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함평군은 축산 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을 위한 연구개발비 43억을 반영시켜 지역의 새로운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여름의 뜨거운 열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광주·전남 같이 하실분 모십니다. 제30-0949873호

062)531-3530, H .010-9229-3530

콘도 회원권 최저매각

양도자 「자금사정」으로 급매각합니다

■ 콘도회원권 매각내용

콘도명	사용 체인	면적	최종 분양가	매각 금액
대명리조트	설악, 홍천스키장, 양평, 삼척, 양양, 천안, 고양, 단양, 제주, 경주, 청송, 거제, 부산, 여수, 진도	패밀리형 방1개	2,530	1,780
		스위트형 방2개	3,600	2,680
한화리조트	설악, 용인, 양평, 평창스키장, 해운대, 경주, 백암, 지리산, 대전, 수안보, 제주, 산정호수, 거제	디럭스형 기명 (방2개)	2,480	1,680
		디럭스형 무기명 (방2개)	3,110	1,880

콘도명	사용 체인	면적	최종 분양가	매각 금액
리솜리조트	제천 포레스트, 덕산 스피러스, 안면도 아일랜드, 제주 퍼스픽	실버(24)방1	2,850	1,680
		골드(28)방2	3,210	1,980
켄싱턴리조트	설악밸리, 설악비치, 가평, 포천스키장, 충주돈산, 수안보, 제주한림, 제주서귀포, 경주, 남원, 하동, 해운대, 도고	패밀리B(21)방1	1,980	980
		스위트A(26)방2	2,120	1,280
		스위트B(31)방2	2,600	1,380
	로얄(35)방3	3,200	2,200	

20년 전통 콘도전문업체 동양회원권거래소 전화 (053)951-3080

팩스 (053)944-3080